P-12

수도권 거주 중·고등학생의 점심식사 유형별 만족도 조사

최희숙 · 송태희[1] · 우인애[2] · 김용선[3]

안산공과대학 식품생명과학과, [1]배화여자대학 식품영양과
[2]수원여자대학 외식산업과, [3]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공동연구소

중·고등학생의 점심식사가 학교급식의 형태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실정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유형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거주 중·고등학생의 경우 응답자의 54.2%가 학교 급식을 하였으며, 37.4%가 도시락을 싸오고, 3.7%는 도시락 전문점, 1.6%는 학교 식당, 1.1%는 학교 밖 식당을 이용하였으며, 1.1%는 기타, 1.1%는 먹지 않는다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심식사에 대한 만족도는 32.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 학생은 도시락 전문점(25.3%), 학교급식(24.1%), 학교 밖의 식당(20.3%)을 이용하고 싶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고 싶다(10.1%), 학교식당에서 사먹고 싶다(10.1%), 기타(5.1%)의 순으로 답하였다. 또한 점심식사에 대한 불만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보면, 도시락의 경우 따뜻하지 않아서, 반찬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반찬의 양이 부족해서, 국(찌개)이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식의 경우는 맛이 없어서, 반찬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반찬의 양이 부족해서 순으로 답하였다. 현재 점심식사 메뉴에 대한 만족도는 7.9%가 매우 만족하였으며, 24.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주 먹는 반찬으로는 김치, 나물류, 불고기 등이었으며, 가장 먹고 싶은 반찬은 까스류(돈까스, 생선까스 등), 햄, 소시지 등이고, 가장 싫어하는 반찬은 당근, 마늘, 고추 등이 들어간 음식, 호박, 연근 볶음 등의 야채와 나물류였다. 또한 한끼 점심식사의 비용으로는 2,000원 이하가 응답자의 54.9%를 차지하였다. 이로서 증가하는 학교 급식이 중·고등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기호에 맞으면서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음식을 적온에 급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